

# 강력해진 심장 달고 쾌속질주... 주행·친환경·효율 '3박자'



## 볼보 XC90·S90

마일드 하이브리드 'B6 엔진' 탑재  
연료 효율성 높이고 가속 부드러워  
'XC90' 강력한 힘에 속도감까지  
고급스러운 'S90', 주행은 날렵



볼보 S90, XC90.



볼보 XC90 B6 AWD 인스크립션 인테리어.

'안전'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자동차 브랜드는 바로 '볼보'다.

안전의 대명사 볼보가 친환경차 기술력까지 선보이면서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바로 볼보의 새로운 심장 B6 엔진을 탑재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XC90과 세단 S90이다. B6 엔진은 주행 성능은 물론 친환경까지 확보하며 팔방미인의 매력을 갖추고 있다.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마린클럽에서 경기도와 주 일대를 다녀오는 약 100km 구간에서 XC90 B6 AWD 인스크립션과 S90 B6 AWD 인스크립션을 시승했다.

B6 엔진은 볼보의 전동화 전략에 따라 기존 T6 엔진을 대체하는 가솔린 기반 고성능 마일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다. 환경친화적이면서도 뛰어난 주행 성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 ◆ 'XC90 B6' 부드러움속 강인함

XC90 B6 인스크립션의 외부 디자인과 실내 공간은 XC90의 DNA를 그대로 계승했다. 변화된 부분은 파워트레인을 새롭게 구성했다.

XC90에 새롭게 탑재되는 B6 엔진은 글로벌 전동화 전략에 따라 기존 T6 엔

진을 대체하는 가솔린 기반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이다. 제동 과정에서 생성된 에너지를 회수해 가솔린 엔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연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더불어 민첩한 엔진 반응을 이끌어 정지 상태에서 더욱 부드러운 가속 성능을 제공한다.

겉모습은 똑같지만 내부는 한층 강화됐다. XC90의 액셀을 밟자마자 강력한 힘이 느껴졌다. 저속에서 부드러웠고 고속에서는 속도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 볼보 측에서 강조했던 엔진의 힘에 대한 자신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동 과정에서 생성된 에너지를 회수해 가솔린 엔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연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민첩한 엔진 반응을 이끌어 정지 상태에서 더욱 부드러운 가속 성능을 제공한다.

최고 출력은 300마력, 최대 토크는 42.8 kg·m다.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는 6.6초 만에 도달한다. 또 T6와 달리 B6는 엔진의 진동과 소음을 완벽하게 잡아냈다.

### ◆ 고속 주行的 즐거움 'S90 B6'

S90은 모듈화 플랫폼 SPA(Scalabl

e Product Architecture)를 기반으로 설계된 세단이다. S90 역시 디자인 부분에서 큰 변화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B6 엔진을 탑재하면서 고속 주行的 즐거움을 완벽하게 선사했다.

S90은 고급스러움과 스포츠카의 날렵함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정숙성과 안정적인 주行的은 물론 고속 구간에서는 빠르게 반응했다. 앞서 시승했던 XC90보다 긴 휠베이스를 적용했지만 낮은 차체와 가벼운 무게 덕분에 우수한 가속 성능을 경험할 수 있었다.

또한 '안전의 대명사'인 볼보의 최신 기술도 집약됐다. 특히 차체 구조는 붕소강철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잠재적 사고 시나리오에서 탑승객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첨단 인텔리제이프 시스템을 기본으로 탑재했다.

볼보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시티 세이프티는 자동 제동 기능과 충돌 회피 시스템을 결합해 사고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차는 물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대형 동물을 감지할 수 있는 유일한 안전 시스템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지난 2일 임직원들이 서울 노을공원 자람터에서 도토리나무를 옮겨 심고 있다.

/LG유플러스

## LGU+, 식목일 맞아 '숲 가꾸기' 활동 펼쳐

LG유플러스가 ESG경영의 일환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숲 가꾸기' 활동을 시작했다.

LG유플러스는 식목일을 맞아 임직원들이 키운 도토리나무 묘목 300그루를 서울 삼암동 노을숲에 옮겨 심는 'U+희망트리'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고 5일 밝혔다.

'탄소중립'이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흡수량을 늘려 실질적인 배출량을 0(제로)으로 만드는 상태다. 일반적으로 성장한 도토리나무는 연간 1그루당

이산화탄소 2.5톤, 미세먼지 35.7g을 저감한다. 300그루가 성목으로 성장할 경우 연간 이산화탄소 750톤, 미세먼지 10kg 이상의 저감효과가 기대된다.

LG유플러스 임직원은 지난 2일 서울 노을공원 자람터에 직접 기른 도토리나무 묘목 300그루를 옮겨 심었다. 묘목이 성목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영양과 공간이 충분한 나무 자람터로 옮겨 심는 과정이 필요하다. 자람터로 옮겨진 묘목은 '노을 숲시민모임'의 관리를 거쳐 2년 뒤 인근 숲으로 재차 이전된다. /김나인 기자 silkni@

## SK브로드밴드 공공기관에 클라우드PC 공급

재택근무, 망분리 동시구현 지원

SK브로드밴드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이하 국토교통진흥원)에 클라우드 PC를 공급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교통진흥원은 이번 클라우드 PC를 도입해 공공기관 처음으로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망 분리와 재택근무 환경을 동시에 구현하게 됐다.

클라우드 PC는 인터넷만 연결하면 데스크톱,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등

다양한 단말을 이용해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서비스다.

SK브로드밴드는 국내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PC 핵심 기술을 상용화했다. 외산 업체에 지불해야 할 라이선스 비용이 없고, 업무 처리 속도와 서버 당 가입자 수용 용량도 외산 업체 대비 2배 이상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모든 업무용 자료는 암호화 된 상태로 저장돼 외부 유출을 원천 차단했다.

/김나인 기자

## '정통 픽업'... 쌍용차 신형 '스포츠&칸' 출시

부분변경 모델... 판매 본격 돌입  
터프한 디자인 눈길, 적재능력 ↑

우수한 적재성을 앞세워 국내 픽업 시장에서 주목받은 쌍용자동차의 렉스턴 스포츠&칸이 투박하면서도 터프한 디자인으로 돌아왔다.

쌍용차는 대한민국 정통 픽업 트럭 '더 뉴 렉스턴 스포츠&칸(이하 신형 스포츠&칸)'을 출시하고 5일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다. 쌍용차는 6일 '온라인 쇼케이스'를 통해 정통 픽업 스타일로 변신한 '신형 스포츠&칸'의 신차 소개 영상 등을 최초 공개한다.

온라인 쇼케이스는 신형 스포츠&칸의 주요 특징점이 소비자들에게 친근하면서 인상 깊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모험과 도전을 통해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셀럽들의 시승 및 리뷰 등으로 구성됐다. 신형 스포츠&칸은 지난 2018년 스포츠, 2019년 칸 출시 이후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통합해 탄생한 페이스리프트(부분변경) 모델이다.

이강 쌍용차 디자인센터 상무는 "신형 스포츠&칸은 프로페셔널하게 일하고 여가 시간은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쌍용차 더 뉴 렉스턴 스포츠 칸 정측면.

즐기는 고객들이 꿈꾸던 라이프스타일에 함께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내면(주행)의 안전함에 눈으로 보여지는 강인함과 튼튼함을 더해 디자인을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형 스포츠&칸의 전면부는 굵은 수평 대향의 리브를 감싸고 있는 라디에이터그릴과 수직적 구성의 LED 포그램프가 적용됐다. 측·후면부는 라디에이터그릴에서 일체형 헤드램프로 이어지는 사이드캐릭터 라인과 새롭게 적용한 익스테리어 패키지가 디자인의 가늠이 적용됐다.

또 오프로드(or 고정식) 사이드스텝

은 스텝폭을 간결하게 한다. 제원을 살펴보면 칸의 데크는 스포츠(1011L, VDA 기준)보다 24.8% 큰 (1262L, VDA 기준)과 75% 증대된 중량으로 최대 700kg까지 적재 가능하다.

다이나믹 5링크 서스펜션 모델은 500kg까지 가능하다. 파워트레인은 e-XDi220 LET 디젤엔진과 아이신(AIS IN AW) 6단 자동변속기 최적의 조합으로 최고출력 187ps/3,800rpm, 최대 토크 40.8kg·m/1,400~2,800rpm을 발휘한다. 칸의 최고출력은 스포츠와 같으나 최대토크는 42.8kg·m/1600~2600rpm으로 높다. /양성운 기자

## 한국타이어, 中 친환경차 시장 공략 박차

니오에 신차용 타이어 공급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전기차 시장 공략에 나선다.

한국타이어는 중국 전기차 기업 니오의 핵심 모델 'ES6'와 'EC6'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한다고 5일 밝혔다. 니오

는 중국 전기차 브랜드 중 하나로, 2020년에 전년 대비 2배가량 증가한 4만 3000여대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급성장 중인 기업이다. 순수 전기차 SUV인 'ES6'은 니오의 주력 모델로 최고출력 544마력, 정지 상태에서 4.7초 만에 100km/h까지 가속할 수 있는 주행 성능을 보유했다. 특히 1회 완충 시 최대 주행

거리는 100kWh 배터리팩 장착 모델의 경우 610km를 주행할 수 있다.

또 'EC6'은 순수 전기 쿠페형 SUV 모델로 정지 상태에서 4.5초 만에 100km/h까지 가속 가능하며, 100kWh 배터리팩 장착 시 1회 완충 최대 주행거리가 615km에 달한다. 니오 'ES6'와 'EC6'에 신차용 타이어로 공급되는 '벤투스 S1 에보2 SUV'는 고강성 비드 필러를 장착해 내구성과 주행 성능을 한층 향상시킨 타이어다. /양성운 기자